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9

서부초원을 지키는 오름군 탐방

제주시 서부 애월·한림들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오름들을 찾았다. 길 좋고 이름이 좋아 평화롭지만 소음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지나치는 관광객들의 손짓에 일일이 화답하고, 찬란한 만추의 은빛 역새 옷이 아까워도, 용트림하는 입춘 기운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마저 활활 태우며 들불 축제라는 이름으로 봄기운을 전하며 오름살이를 시작하는 새별오름과 푸른 목초지에 우뚝 솟아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펼쳐 보이는 금오름을 찾아간다. 초원에 누워 있는 듯 없는 듯 자락을 이어가며 분화구는 오롯이 목초지로 내어주고 소·말을 살피우며 제주서부를 풍요롭게 하는 이달봉, 가메·누운·밝은오름과 성소 세미소가 함께한다.

바리메오름에서 본 전경(서쪽해안)

버스노선

새별오름, 이달봉, 가메오름, 누운오름 : 평화로(1135번로)화전마을 - 282, 250-1, 2, 3, 4번
금오름, 세미소오름, 밝은오름 : 금악북로이호동물병원 - 783-2번



테쉬폰과 우유부단



새별오름 - 이달봉 - 가메오름 - 누운오름 - 금오름 - 세미소오름 - 밝은오름



이달봉에서 바라본 새별오름 분화구

새별오름

일하면서나 관광을 하면서나 평화로를 지나치면 항상 스치는 오름이 새별오름(표고 519m, 서·북향말굽형화구)이다. 저녁 하늘의 셋별과 같이 외롭게 서 있다 하여 효성악, 신성악이라고도 한다. 뒷마당에선 관광개발이 야금야금 자신을 갉아 먹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분화구·능선·자락에 이리저리 탐방로를 내어 어지럽게 하든 말든,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로 야자매트탐방로가 닳고 닳아 새로 갈든 말든, 제주사람들과 삶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오름임은 틀림없다. 입춘지절엔 그 뜨거운 들불로 자신을 태우면서 제주의 새봄을 고사리로 시작하고, 성하의 열기를 품어 키워낸 강인한 억새로 제주의 가을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바다와 한라산이 마주 보며 눈인사하는 중간 서북부 중산간 능선에서 아침햇살에 영롱하게 반짝이고, 저녁 해거름에 붉게 물드는

제주바다를 꼭 닮은 억새물결의 새별오름은 못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멋진 오름이다. 발걸음 떼기 아쉬워 몇 장의 사진으로 새별오름을 간직한다.

제20회 제주들불축제에 곁들어 오름 탐방을 함께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이달봉에서 금오름까지의 탐방은 해넘이까지 하고 나서야 분화구 입구에 왔다. 서북 분화구 능선을 따라 말들이 만들어 놓은 가파른 길을 따라 북쪽 정상에 도착했다. 의인묘지 남근석, 선비상에 대해 뜻을 새기고 능선을 따라 새별오름을 즐기고 있는 관광객과 어울렸다. 축제장의 잡상인은 배고픔과 오싹한 한기를 주었지만 주최 측의 전통음식 시식행사와 공연, 불꽃놀이하는 기다리는 즐거움을 주었다. 대미를 장식한 활활 자신을 태우는 새별불길은 악귀를 태웠고 각자의 소원을 싣고 하늘 높이

새별오름 2018 제주들불축제



숯았다. 소원우체통에는 내년 이맘때 받을 엽서 한 장 넣었다. 수채함이 건강하고 소원을 이루도록! 화산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되고 찾는 이와 함께 영원할 수 있도록! 느린 우체통으로부터 작년 엽서를 받고 숙이와 함께한 2018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신나는 모습이나, 행사와 관계 없는 장사꾼들과 주최 측의 자기자랑은 올해도 여기저기 피식거리는 비아냥을 받았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예.



뚜벅이 평화로(1135번도로) 화전마을(282,250-1,2,3,4번) →
탐방안내소 1.6km

승용차 새별오름탐방소(주차장, 쉼터, 화장실, 들불축제기간은
제주와 서귀포시에서 왕복버스운행)

이달봉

애월읍 봉성들판 최고의 명성 새별오름과 친하게 이웃하면서 그 유명세라도 조금 받을 수 있을까? 남북 2개의 봉우리 원추형쌍둥이 화산체로 유혹하는 표고 489m에 해송을 키우는 이달봉(二達峰)과 화산암을 정상으로 뿜내는 456m의 이달이쫄대봉이다.

새별오름분화구 서쪽 진입로와 같이하는 이달봉 동쪽 탐방로는 안내간판과 줄로 안내하는 역새길을 지나면 소나무와 삼나무 숲 사이로 낸 타이어매트길은 점점 가파르게 정상으로 이어졌다. 험레벌떡거리며 오르는 나만의 탐방이다. 정상은 유인 경방초소, 삼각점, 이달봉표지석을 중심으로 잡목, 해송이 키만큼 정상 높이를 더한다. 사방좌우 터지는 전망이야 표선의 오름골과 비슷하다. 여기저기 나타나는 오름들이 마음을 흐트려 평상심을 잃고

조급하게 하였다. 인기척을 남기고 산등성이 소나무숲으로 난 타이어매트와 나무계단을 따라 분화구를 같이하며 누가 더 높은가 소나무 키를 키우고 있는 이달이쫄대봉으로 향한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탐방로다. 소나무와 송이 사이로 타이어매트를 깐 탐방로로 가파르기는 마찬가지다. 단숨에 제주 할망 오르미를 뒤로 하고 정상에 올랐다. 화산암과 묘지가 쉼터를 대신하고 제주할망 오르미의 딱딱따끈한 찢고구마 나눔에 이달이쫄대봉은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할망의 고마움과 들불축제와 오름에 대하여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좋은 날씨의 들불축제날은 십여 년만에 처음이라 하신다. 그런가? 앞에 보이는 오름에 대해 물었으나 답은 없다. 전문 오르미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새별오름 분화구쪽 탐방로를 향하고 들불축제만 즐기면 되는데..... 저 멀리 누워있는 산세도 오름인 모양이다. 마음은 새별오름인데 발은 서쪽 사면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녹근로에서 이달봉 정보입석과 탐방로를 만났다. 계획도 자료도 없었지만 반가운 마음에 잠들은 오름 깨우러 목초지를 지나 일각로로 가고 있는 오르미가 있었다.



뚜벅이는 새별오름과 연계, 승용차는 녹근로 정보입석 빈터 주차.

가메오름

이달봉에서 보았던 누워 있는 산세는 누운오름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존재를 알리는 오름이 있다. 더 낮은 모습을 자랑하는 가메오름(표고 372.2m, 비고 17m, 원형분화구)이다. 사이좋게 누워 자락을 이어가던 누운오름과 가메오름은 일각로 때문에 생이별의 애애틀함을 달래고 있는 모습에 마음 아프다. 일각로에서 한발

이달봉과 이달이쫄대봉





누운오름에서 본 가메오름

만 높게 놓으면 어깨고 또 한발 크게 뛰면 산등성이다. 넓지도 깊지도 않은 평퍼짐한 원형분화구를 보노라면 뒤집은 솔뚜껑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부침개가 떠오른다. 한 바퀴 빙 두르면 낮은대로 자신이 가진 모습을 보여준다. 오름과 더불어 주변에는 큰 산이나 숲이 없기에 사방을 열어준다. 북서 해안풍경을 따라 가면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만나 물으로 향하는 끝없는 수평선을 긋고, 반대편엔 이달봉형제를 비롯하여 새별오름과 중산간 일대의 오름군락들이 작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인기척에 누운오름도 잠깐 머리를 들어오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뚜벅이 이달봉 정보입석에서 들머리 → 탐방소 950m
승용차 일각로 탐방로입구 노변

누운오름

일각로로 단절은 되었지만 가메오름과 함께 금악들의 축첩 마소들을 살찌우는 역할은 충실하게 하고 있는 누운오름(표고 407m, 원형분화구)을 찾아간다. 폴짝 뛰면 등성이에 걸칠 듯 그런 오름이라 일각로에서 성뭇길을 따라 능선에 올랐다. 고만고만한 봉우리 5개가 외륜산外輪山을 이어가면서 가운데는 더 넓은 분화구가 초지를 이루고 있는 목초지가 크디큰 잔디광장을 연상케 한다. 목초지 가운데는 알오름이 있고, 조그마한 호수도 우마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 한가롭고 여유롭다. 분화구 능선을 따라 봉우리 하나 지나면서 넓은 초원 한번 바라보고 고사리 한 움큼 꺾고, 눈높이로 펼쳐 보이는 파노라마 전경에 마음 편히 봉우리 하나 지나면서 또 한아름 고사리를 꺾을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로도 최적이다.



뚜벅이·승용차는 가메오름과 연계.

금오름

내가 생각해도 무식한 오름탐방이었다. 이달봉-가메오름-누운오름-금오름-세미소오름-밝은오름-새별오름까지 20km를 훌쩍 넘는데다가 들불축제까지 꼬박 12시간을 들에서 보내야 했기에 말이다. 이달봉, 가메, 누운오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일대에서 제일 높고 첩탐이 있는 오름을 보고 무작정 찾아간다. 위험을 가하는 말들과 폭탄을 피해 목초지를 가로지르면 흰 궁둥이를 드러내고 풀 내음에 취했다가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펄쩍 뛰면서 뒤돌아보는 노루떼, 살찌 발도 무겁고 날기도 힘겨워하는 장끼들도



누운오름과 알오름



운동시키며 쫓아간다. 왜냐하면 광산로, 금악북로를 따라 좋은 길 편히 가다가는 어느 천년에 오름탐방을 마치고 들불축제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금악북로 제1양돈단지에서 밭 가장자리를 따라 무작정 해송숲을 들어서니 산책로가 반긴다. 야자와 타이어매트로 잘 단장한 희망의 숲길(2.3km)이다. 솔향기 맡으며 마음 바쁘게 꼬불꼬불 돌레길을 돌아오니 한창로에 시작하는 탐방로와 마주친다. 시멘트포장 찾길도 야자매트와 목재계단 등산로도 금오름은 내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일제시대에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은 진지동굴로 방송통신중계소로 오늘 이런 신세가 되었다. 금악중계소관리와 패러글라이더 활공장으로 덕지덕지 시멘트를 정상까지 붙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아부오름이나 용머리오름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데..... 남북봉우리에 동서원형굴부리로부터 풍기는 금오름의 상서로운 기상은 예사롭지 않다. 굴부리를 통해 펼쳐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오름 풍경은 동양화 그 자체이며, 들에서 살아가는 제주민들의 삶은 서북 바다에 녹아 은빛 물결과 하나 되어 날아온 섬 하나도 애지중지 떠받치며 멀리 물으로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금오름은 예전부터 보여주고 있었는지 모른다.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남북 산과 바다를 아우르며 펼쳐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은 금오름이 아니면 감히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오래토록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서너 번의 발길을 더 하고 서야 털어졌다. 건너편 세미소, 밝은오름이 차례를 기다리며 새별오름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남 핑계로 손짓한다.



뚜벅이 금악북로 이호동물병원(783-2번) → 탐방안내소1.5km

승용차 한창로 금오름탐방소(주차장, 화장실)

세미소오름

오름탐방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실하고 성지답사라 하기엔 문외한이라 둘러보는 정도로 세미소오름(泉味沼岳 374.8m, 원형화구호·세미소연못)을 탐방한다.

금악북로 성못길을 따라 세미소오름 서쪽 봉우리에 올랐다. 키를 훌쩍 넘는 퇴색된 역새군락이 좀체 길을 내주지 않는다. 연못이 길잡이를 했기에 얼떨결에 원형화구호에 왔다.

세미소연못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를 따라가면서 눈과 입으로 새긴 성경귀절은 귀에 여운을 남기면서 제자리에 왔다. 그리고는 연못을 에워싸고 있는 완만한 기복의 다섯 봉우리를 오른다. 세미은총의 동산을 입구로 하는 남동봉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귀의한 모습으로 능선과 정상에 정결히 하였으나 자유롭지 못하고, 성묘철에나 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남·서봉우리는 역세로 묘지를 은폐하여 돈 되는 좋은 산이라며 투기꾼을 기다리고 있고, 그나마 해송으로 산 모습을 갖춘 북쪽의 두 봉우리도 개간된 목초지가 골을 깊게 넓히면서 떨어져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괜히 부아가 났다. 오름이 무슨 죄가? 좀 그대로 놔두면 덧나나? 투덜거리는 발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넓게 트인 초지가 마음을 평정

세미소오름과 세미소



시키면서 누운오름 초지로 이어주고 제주들불축제를 상기시키면서 다음 길을 알려준다.



뚜벅이 금오름 탐방소 → 금악북로 쪽 탐방로 1.5km

승용차 산록남로 성이시돌센터(주차장, 화장실)

밝은오름



밝은오름(금악)

딱히 진입로를 잡을 필요는 없다. 세미소오름 북쪽 능선으로 내려와 광산로 근방에서 볼록한 등성이에 오르면 밝은오름(금악리 380m, 북향말굽형분화구)이다. 한림읍에만 같은 이름을 가진 오름이 3개(상명리 182.5m, 명월리 148.5m), 제주도에는 5개(해안동 337m, 동광리 290m)가 있는데 오밀조밀 아담한 모습과 내 용은 서로 닮았다. 오름의 색이 붉다 하여 붉은오름, 명악明岳이라 불리는데 정말로 새빨간 흙이 피를 토해 스며든 것처럼 강렬하며, 피 튀어 오를까 조심스럽다. 사방이 개간되었기에 목장초지를 지나 등성이에 오르면 목장 한가운데 있는 자신과 반달 모양의 말굽형 분화구가 북쪽으로 입을 벌리고 목초지를 관리하면서 낮지만 더 넓은 풍경을 보여주고 있음을 느낀다. 사방의 누운오름, 북돌아진오름, 정물오름, 금오름들을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고, 분화구 능선을 따라 묘지라도 있으니 역새, 잡목, 가시덤불이 산의 형태를 갖추고 밝은오름이라는 이름도 지켜주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뚜벅이 세미소오름 북쪽 날머리 → 탐방소 1.7km

승용차 광산로 오름동쪽 진입로 빈터

연계관광지

금악리건강증진센터 : 제주도에 오면 이런저런 즐길 거리가 많기도 하다. 오늘은 하늘을 날아보기 위해 건강증진센터에 가보자. 하늘을 날 수 있고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패러글라이딩이다. 금오름에서 하늘을 날아 제주에 있는 나의 모습을 담아보자 하루 일당 몽땅 들어서라도.

그리스신화박물관 : 유럽에 가지 않고 유럽박물관을 만난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대를 넘나드는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스신화박물관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공부도 되고 뭔가 알고 오는 것이 있어서 좋은 곳. 조금 유치幼稚하지만 어린 시절 상상 속의 신화와 신들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곳에 왔다.

금악리건강증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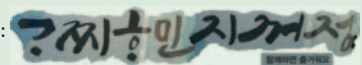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같이하면 즐거워요

제주음식 : 별오름정육식당

농협안심한돈, 제주흑돼지 오겹살, 삼겹살, 육회로 등반으로 출출한 배를 채워보셔요. 기본상차림(저렴) 불판에 계란찜, 김치, 콩나물, 쌈 등이 셀프로 무한 제공되는 것이 맘에 든다.



제주명소

성이시돌목장(테쉬폰과 우유부단카페) : 제주도의 기분을 내는 핫플레이스 Hot Place는 많다. 누군가에 의해 금악들판에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성이시돌목장 속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테쉬폰Cteshphone과 우유부단(사회적 기업 섬이다悶異多가 운영하는 카페)이다. 작고 허름한 헛간처럼 생겨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구조물 테쉬폰과 우유과 속의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우유부단 포토존이 명물로 되었다. 인증샷 찍고 우유부단에서 양증맞게 담은 우유티나 아이스크림으로 여유를 가진다. 일흔이면 어떨고 예순이면 어떨라. 낭만과 멋이 함께 하는 그런 곳인데.



테쉬폰



카페 우유부단

☞ [] 제주방언, () 보충설명 / 정보검색 : 한라산둘레길 www.hallatrail.or.kr

제주시 서부 중산간에 우뚝 솟은 노꼬메, 바리메오름에 오르면 한라산이 못다 보여주는 제주의 골짜기와 해안으로 이어지는 하늘선을 따라가면 자연이 그리는 곡선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연한가를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 노꼬메-바리메오름에서 삶의 한 수를 배우고, 너무 높아 우러러보기도 버거워하는 계곡오름과 안천이오름, 외로이 자락을 이어가는 산세미-천아오름을 찾아가다.